

인간과 하천

• 4

River & Culture



김정현 | 동화작가  
(kimskorean@naver.com)

하천과 동화

# 물나라와 불나라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구가 생길 때 처음에는 온통 불덩어리의 모습이었다가  
 나중에 바다와 육지로 변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미있  
 는 동화를 경민이의 반 아이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아득한 옛날 아주 아주 먼 옛날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에 물나라와 불나라만이 있었어요.  
 물나라는 불나라보다 넓었습니다. 세 배나 넓은 나라였어요.  
 넓은 물나라는 하늘처럼 언제나 푸른 빛을 띠고 아름답고  
 평화롭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불나라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마치 피를 토해 내듯  
 시뻘건 불길들이 어느 곳 할 곳 없이 무섭게 뿜어내고 하늘  
 높이 치솟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불나라는 붉은 불 이외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어요.  
 그러나 물나라는 불나라와는 다르게 온갖 것을 볼 수 있  
 었습니다.

그것은 물고기랑 고래랑 거북이랑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종  
 류의 생물이었어요.

물나라는 우리가 생일 때 국 끓여 먹는 미역도 볼 수 있었  
 습니다.



물나라를 다스리는 임금님은 용왕님이었어요.

불나라는 화마라는 무시무시한 임금이 다스리고 있었습니  
다. 임금이 너무 무서워 생물이란 것은 아무것도 볼 수 없  
었어요.

그런 불나라는 가끔 가다가 평화로운 물나라를 괴롭히고  
했습니다. 그것은 물나라 깊숙한 데로 들어와 무서운 폭발을  
일으키고 한 것이었어요.

폭발은 하늘까지 닿게 하는 화산폭발이었습니다.

그러면 물나라에서 사는 많은 생물들은 큰 피해를 입고 하  
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도 피해를 보였습니다.

그것은 숨 막히게 하는 화산재였어요.

어느 날 물나라는 또 화산폭발을 보았습니다. 불나라에서  
일으킨 폭발이었어요.

이번 폭발은 보통이 아니었어요. 매우 큰 폭발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물나라는 분위기가 뒤숭숭했습니다.

물나라 용왕님도 불나라가 일으킨 폭발에 더 참을 수 없었  
습니다. 그리고 용왕님은 결심했습니다. 신하들을 모아놓고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불나라의 야만적 행동은 한 두 번이 아니었는데 그래도 우  
리가 늘 참아 왔다. 그러나 이제 더 참을 수 없다. 내 이제 불  
나라를 없앨 계획을 세우겠다.”

“그 계획은 무엇입니까?” 한 신하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용  
왕님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건 하늘나라를 찾아가서 함께 불나라를 멸망시키자고  
하는 것이다. 하늘나라는 우리보다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하늘나라의 혜택을 많이 받아 왔다. 알고 보  
면 나는 하늘나라의 도움으로 이렇게 넓은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것이다.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눈비를 내려주고 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이렇게 큰 나라를 이루고 있지 못했을 것이  
다. 이번에도 불나라를 꼭 없애야겠다는 결심이 섰는데 하늘  
나라 임금님께서서 부탁하면 도와주실 거다.”

그리하여 용왕님은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임금님에게 왜 불나라를 없애야 하는지  
를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이 설명에서 하늘나라 임금님은 다음과 같은 용왕님의 말에 좋은 느낌을 받고 도와주기로 하였습니다. 용왕님이 들려준 말은 바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니다.

“불나라가 망하면 그나라도 우리 물나라와 마찬가지로 온갖 생물들이 사는 나라가 세워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나라도 우리나라처럼 하늘나라를 항상 존경하고 감사하는 나라로 있을 것입니다.”

하늘나라 임금님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물나라를 돕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대 나라는 가만히 있게! 우리 하늘나라가 단독으로 불나라를 망하게 하겠네!”

그리고 하늘나라 임금님은 신하들을 모아 다음과 같이 명령했습니다.

“구름들을 다 집합시켜라. 하나도 빠짐없이 모이게 하여 비를 내리고 눈을 뿌리게 하라. 일 년 내내 그러도록 해야 한다. 비를 내리더라도 소낙비를 내리도록 하고 눈은 함박눈을 쏟아 부어야 한다. 그러면 제 아무리 뜨거운 불나라라 하여도 배겨내지 못한다. 사실 나도 불나라 화마가 포악해서 미워했다. 이번 화산폭발에도 우리 하늘나라가 화산재로 덮여 더러워지기도 해서 화가 났다. 바람이 불어주지 않았으면 계속 더러워져 있었을 것이다.”

하늘나라 임금님의 이런 명령이 있는 뒤에 많은 구름들이 모여들어 어두운 먹구름 무리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무섭게 쉼쉼 소낙비를 내렸습니다.

불나라 마왕은 깜짝 놀랐습니다. 불나라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바로 소낙비였습니다.

선생님은 잠시 얘기를 끊고 경민이의 반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마왕이 무서워하는 소낙비가 몇 날 몇 달에 걸쳐 불나라에 내린다고 하면 마왕은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그야말로 사시나무 떨 듯 하며 새하얀 얼굴이 되었을까요?”

선생님은 다시 얘기를 이었습니다.

마왕은 그러했습니다. 계속 소낙비를 맞다가는 내가 죽는 것은 물론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하며 떤 것입니다.

그렇게 무섭게 활활 타오르던 불길은 사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불나라는 워낙 불길이 강해서 석달 열흘이나 소낙비가 쏟아져도 불뿔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눈까지 쏟아 붓기 시작했습니다. 불나라에는 차가운 얼음까지 생겼습니다. 얼음이 곳곳에 생기자 불뿔도 견디지 못하고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화마도 죽고 남은 불뿔도 사라지고 말았는데 불나라는 끝내 완전히 망하고만 것이었습니다.

불나라가 망한 이후로 어떻게 되었느냐구요?

용왕님 말처럼 그곳에는 생물들이 사는 새로운 나라가 생겼습니다. 생물들은 온갖 나무들, 온갖 꽃들, 온갖 짐승들을 말합니다. 짐승들이라 하면 동물원에서 어린이들이 쉽게 볼 수 있는 호랑이, 사자, 늑대 같은 동물을 말하죠.

불나라가 망한 후 오늘날 우리가 토끼랑, 다람쥐 같은 종류의 생물들도 보듯 좋은 나라가 된 것입니다. ●